

성, 권력 그리고 정의: 목회자 성적 탈선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분석과 대책

신원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I. 서론: 목회자의 성적 탈선문제 연구의 필요성
- II. 성경이 말하는 성과 영성 그리고 성직자의 성
- III.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유형과 원인
 - 1. 성적 탈선의 유형
 - 2. 성적 탈선의 원인
- IV. 왜곡된 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 탈선: “신뢰의 배신”
- V.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낳는 결과
 - 1. 목회자
 - 2. 상대자
 - 3. 교회
 - 4. 이웃과 사회
- VI. 성적 탈선의 예방책: 경고체계와 지원체계
 - 1. 정직한 자기 인식과 성직자로서의 자아 정체감 재확인
 - 2. 성적 탈선 위험 징후 측정 체계 마련하기
 - 3. 지원 체계 마련하기
- VII. 성적 탈선 대응책: 정의와 회복
- VIII. 성적 탈선 관련 교회법 정립과 성윤리 강령
- IX. 나가면서

• ABSTRACT •

Sex, Power, and Justice: A Christian Ethical Analysis of Clergy Sexual Misconduct and Its Prevention

Shin, Won-h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ature of sexual misconduct by clergy and to present a proposal for its prevention and appropriate response to cases of misconduct. Throughout church history, there have been two main theological views on clergy sexuality and its relation to spirituality. While one affirms it positively, the other does not; while one rejects the elevation of celibacy, the other does not. However, the Bible clearly says that God created humankind as male and female according to God's image. Both man and woman are sexual beings. The Hebrew Scripture understands the human being as a psychosomatic unity. The spirit and the body are closely interrelated. It means that the human being exists as an embodied person. If spirit has to do with body, spirituality has to do with bodily life. Spiritual life is not separated from bodily life at all. It means sexuality is an integral part of spirituality: the more a clergyman is filled with wholesome sexual energy, the deeper he experiences spiritual fullness. Conversely, the less a pastor is sexually satisfied, the greater the temptation is to slip into sexual misconduct.

In reality, sexual misconduct by pastors in the ministry is quite prevalent. According to analyses, there are three major types of sexual offenders: the predator, the wanderer, and the lover, respectively. The cor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nature of sexual misconduct by clergy. The paper defines it in terms of abuse of clerical power. It is characterized as betrayal of trust between pastor and congregant, which eventually shakes trust-based community.

Then, this paper proposes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clerical sexual misconduct. It puts an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warning system

of some kind in order to determine what levels of attraction and intimacy are unacceptable, by which pastors can be alerted and refrain from dangerous intimacy. Finally, the paper suggests what the Church should do in order to carry out justice after a case of sexual misconduct has occurred. The Church is called to make the case public and to take preferential care of the victimized. Finally, the Church ought to prepare an ethical code regarding clerical sexuality and laws in order for her to carry out ecclesiastically sanctioned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Key words: sexuality, clergy sexual misconduct, abuse of power, betrayal of trust, warning signs, justice

I. 서론: 목회자의 성적 탈선문제 연구의 필요성

교회에서 성(性)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거룩함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세속적 쾌락과 관련된 성을 언급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성직자(聖職者)의 성(性)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다. 이는 목회 직에 대한 불경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아직도 목회자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잖게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는 달리 목회자들도 성직을 맡아 사역하는 자이지만 일반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성에 관해서 목사들도 성적 욕구가 있고 성적 유혹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성적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성적으로 탈선할 경우 생각보다 큰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탈선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 일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독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낳게 하고, 결국 복음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근래 인터넷 매체나 언론에서 대형교회 목사의 성적 탈선에 관한 보도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실제로 1998년 7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접수한 성폭력 사건은 108건이고 그 중의 97%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¹⁾ 그렇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훨씬 많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²⁾

-
- 1) 강호숙,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 26권 (2012 가을), 186.
 - 2) 미국의 경우를 통해 한국의 건수도 대충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2009년 미국 베일러 대학 가랜드(Diana Garland) 교수는 성인교인 400명이 넘는 교회에는 평균 7명의 여신도가 목사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다는 통계를 내 놓았다. 그는 목회자 성적 탈선은 이제 모든 교단에 걸쳐 편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Pamela

목사의 성적 비행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공영 매체에서 보도되거나 심지어 심층 분석 주제로 다뤄진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교계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예방하는 일에 이전보다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설령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그 문제가 일반 사회로 옮겨지지 않도록 교계가 자정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수한 전문직 윤리라고 할 수 있기에 목회자와 교회 및 신학계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연구를 진행해온 서구 교회와는 달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각 교단 총회적 차원에서 이런 연구 작업을 진행한 것은 매우 미미한 형국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촉발된 이 글의 목적은 목회자의 성적 삶은 경건과 목회 사역에 기여하는 다면적 자원임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성격 및 결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의 예방책과 아울러 사건 발생이후의 처리 및 대응책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성경이 말하는 성과 영성 그리고 성직자의 성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성에 대한 시각은 그것을 결혼과 도덕적인 삶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이해한 흐름과 한편으로 성, 여자, 몸을 열등한 것 내지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성과 영성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한 흐름이 나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s Response*, (Minneapolis: Fortress Pr, 2012), 151.

란히 내려왔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 독신주의의 전통 안에는 후자의 흐름이 영적 엘리트주의와 어느 정도 합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³⁾ 개신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흐름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인간의 성을 결혼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여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 동물에 대한 태도와 너무나 다르게 아담은 즉각적으로 여자에게 다가갔고 한 몸을 이루었다(창2:23-24). 창세기는 남녀의 성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말한다(창 1:27). 인간이 다른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각기 뭔가 조금 다르게 세상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남성이 사물을 보고 느끼며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은 여성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성을 지닌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두 다른 성적 존재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 때문이다.⁴⁾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특질로 이해했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이해했다.⁵⁾ 넬슨(James B. Nelson)은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관계하며 존재하는 것처럼 그 형상에 따라 각각 성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은 서로 연합하기를 갈망하여 상호 강건하게 하는 관계에 참여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그에

3) Lisa Sowle Cahill, *Sex Gender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78-9.

4) Stanley Grenz, *Sexual Ethics: A Biblical Perspective* (Dallas, Tx.: Word Publishing, 1990), 8.

5) Richard J. Foster, *Money, Sex & Power*, 『돈, 섹스, 권력』 김영호 옮김 (서울: 두란노, 1989), 106.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⁶⁾

창조기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녀의 성과 성적 관계를 몹시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창 2:25)는 표현은 남녀가 벌거벗고 서로의 육체를 노출한 채 지내며 몸으로 서로를 경험하고 관계하는 생활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묘사한다. 그것은 피조된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신체의 아름다움과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의 아름다움, 즉 소위 에로스의 아름다움이다. 그 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고 성애의 거리낌이 없었다.⁷⁾ 포스터(Richard Foster)는 이것을 타락 이전에 수치심이 없는 에로티시즘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면서 타락이 에로스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에로스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성경은 영과 육,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 우월과 열등, 선과 악의 관계로 이해해 온 고대 헬라 철학과는 달리 처음부터 인간은 몸과 영이 통합되어 있는 전인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에 성(sex)은 영성(spirituality)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성을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⁹⁾ 신학자 마르바 던(Marva Dawn)에 따르면, “인간은 영과 육이 긴밀히 연결되어 짜여진 피조물이다. 사람이 육체로 행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과 아울러 현재 자신을 말해주는 내면의 핵심 부분인 영혼과 불가결하게 관련된다.”¹⁰⁾ 그렇다면 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은 결코 성경

6) James B. Nelson, *Body Theology* (Louisville, Kent.: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23

7) 차정식, 『성서의 에로티시즘』, (서울: 꽃자리, 2013), 168.

8) Foster, 『돈, 섹스, 권력』, 108.

9) Karen Lebacqz and Ronald G. Barton,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Kent: Westminster/John Know Press, 1991), 32.

10) Marva J. Dawn, *Sexual Character: Beyond Technique to Intimacy* (Grand Rapids, Mich.: Eerdmans Pub. Co., 1993), xi.

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고대 헬라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영향과 이의 영향을 받은 초대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¹¹⁾ 그러나 성적 만족과 희열은 영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성을 절제하는 것이 순결한 영성을 고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성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진정한 인간됨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다. 인간의 성관계는 상대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우리를 타자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그럼으로 신비한 하나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적으로 충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친밀감과 탈아적(脫我的) 강건함이다. 이런 기능을 하는 성의 신비를 누리는 것은 영성을 고양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그 영으로 자신이 온전히 젖어드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이다.¹²⁾ 이와 유사하게 성적인 연합도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탈아적인 신비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를 통해 성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친밀감과 희열의 크기와 깊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¹³⁾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자신이 성적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인정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누리며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이를 오용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11) 교부 오리겐은 육체의 성관계를 삼가는 것이 영혼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고 이나 터틀리안은 성을 죽이는 것이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Cahill, *Sex Gender and Christian Ethics*, 172.

12) Jack O. Balswick and Judith Balswick, *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Approach*, 『진정한 성』,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58.

13) Lebacqz and Barton, *Sex in the Parish*, 33.

을 오히려 저해하고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은 크리스털 잔과 같이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이 성적인 죄를 범할 경우 주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그 결과는 단순히 목회자 자신과 상대방을 넘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이것은 목회자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교회가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문제인 셈이다.

III.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유형과 원인

1. 성적 탈선의 유형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구체적 유형을 구쉬(David Gushee) 교수는 크게 몇 가지로 소개한다.¹⁴⁾ 미성년자 성 추행, 강압적인 성적 접촉, 성적 반응을 요구하는 의도로 부적절한 성적 언어로 짐적거리기는 성희롱, 키스, 신체 전체가 맞닿는 포옹을 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것, 예민한 부분을 부딪치는 부적절한 육체적 접촉, 교인과의 성관계, 그리고 바깥 직업 여성을 찾아가는 것 등이다.

그런데 그렌츠와 벨(Stanley Grenz and Roy Bell)은 성적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포춘(Marie Fortune)이 이미 분석한 바 있는 두 유형의 모델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매우 통찰력이 있는 분석이다. 첫째는 약탈자(predator) 형이다.¹⁵⁾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위와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찾고 유인하

14) David Gushee, "Clergy Sexual Misconduct: A Crisis in Ministerial Ethics," in *Preparing for Christian Ministry: An Evangelical Approach*, ed. David P. Gushee and Walter C. Jackso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155.

15) Stanley Grenz and Roy Bell, *Betrayal of Trust: Confronting and Preventing Clergy Sexual Misconduct* (Downers Grove, Ill: IVP, 1995), 40.

여 이성 신자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포식자의 유형이다. 의도적으로 대상을 겨냥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척하면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흔들어서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권력을 악용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말한다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과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암놈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방랑자(wanderer) 유형이다.¹⁶⁾ 이것은 주로 목회에 성과가 별로 없고 충족감이 결여된 목회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목회자들은 뭔가 허전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기에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고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는 성도들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 이런 허전함을 채우고 위안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목사와 어떤 신자와 가까이 지내고 이런 저런 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신자가 목사를 가까이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목사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경우 교인이 격려와 연민을 표현하기 위해 가벼운 페팅이나 포옹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성적으로 의도가 없는 이런 행동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 성적 일탈의 촉발제로 작용할 수 있다. 통제력이 약한 목사들 가운데 더러는 그 상황에서 무장이 해제되어 성관계를 맺는 사건으로 빠지곤 한다. 그런데 이런 유형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감정이 어느 정도 식어버리면 두 사람은 모두 수치, 죄책감, 초조, 그리고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서 아주 크게 상처를 받게 된다.¹⁷⁾ 두 사람은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자신들의

16) Ibid., 41.

탈선 건이 교회에 드러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게 처리했다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이후에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영적 도덕적 자신감을 상당부분 잃게 마련이다.

셋째는 연인형(lover)이다.¹⁸⁾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과 사랑의 감정에 빠지는 것이다. 물론 목사는 교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발전되는 것은 문제시하면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려고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남성이고 기혼이기에 육체적 관계없이 특정 교인에게 낭만적인 감정만을 갖거나 혹은 상호 연인적인 감정을 갖고 키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특정 신자와 연애 감정을 갖게 되면 자연히 교회 전체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성적으로 별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관계도 성적 탈선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목사가 만약 이런 낭만적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 관계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목사와 신자의 목회자와 영적 돌봄의 대상이라는 본래적인 관계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고 결국 그 신자는 목(회)자를 잃게 되는 셈이다.¹⁹⁾ 이런 유형은 목사와 신자가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여러 차례 만나는 가운데 연인적 감정을 키우게 되면, 목사는 더 이상 치유자가 아니게 되고 내담자가 도리어 목사의 감정을 돌보는 치유자로 돌변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본래의 직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다.

이 세 유형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큰 피해를 입히는 유형은 바로 첫째 유형인 약탈자 유형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17) Ibid., 42.

18) Ibid., 43.

19) Ibid., 44-5.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도 청년들을 중심으로 부흥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다수의 여자 청년들을 성추행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 교회를 사임한 일이 있었다. 그는 사역을 마친 후에 여자 청년들을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여 다리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 후 자신이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성추행하고 이를 기록한 일인 양 포장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자 청년들은 누구에게 말도 못했으며, 말을 한 경우에도 주위에서 담임 목사님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된 말을 한 것으로 매도당하기도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경우는 분명히 목사가 목사의 영적 권위와 신자와 목사사이에 있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이다. 이보다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나머지 두 유형도 실질적으로 이 두 요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영적권력과 신로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성적 탈선의 원인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크게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목회자가 개인의 결혼생활과 가정사에서 성적 욕구가 현저히 무시되거나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또는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경우 다른 데에서 보충하고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하여 이것이 종종 탈선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것 외에 각각의 목회자에 따라 다양한 개인적 사정과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을 일반화시켜 다루기는 쉽지가 않다. 그것에 비해 구조적 원인은 비교적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탈선 유발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교회사역의 구조를 들 수 있다.

목회자들은 신자들과 다양한 형태로 대화하고 만나고 상담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하며 사역해야 하는 틀 안에서 사역한다. 교회 구성상 목사는 남성이 압도적이고 교인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는 이성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성적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을 많이 안고 있다.²⁰⁾ 특히 한국 교회와 같이 목회자의 90% 이상이 남자이고 신자의 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²¹⁾

목사들은 많은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와 실제 삶의 문제들까지 다루고 문제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 사명과 아울러 일종의 강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가진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다. 또 생활이 불규칙하고 주간 내내 일과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처지의 성도들을 만나 문제를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하는 목회 성격 때문에, 제대로 편히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해결사 강박감을 갖고 지내게 된다. 그런 가운데 정작 목회자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될 때, 목사는 성적 일탈의 유혹에 훨씬 더 취약해지곤 한다.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해적인 의도로 이런 일을 통해 목회 현장을 떠나려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도 더러 있다.²²⁾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에 쉽고 레저를 위해 자유롭게 갈 곳이 많지 않는 목회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서재나 집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클릭함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인터넷 음란물과 포르노물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고 음란물

20) 여자 목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미국에서도 성적 탈선은 90% 이상이 남자 목사와 여자 신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1) 대부분의 성적 탈선이 남자 목사와 여자 신자와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목사를 남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22) David P. Gushee, "Clergy Sexual Misconduct: A Crisis in Ministerial Ethics," *Preparing For Christian Ministry: An Evangelical Approach*, eds. David P. Gushee, and Jackson C. Walter (Wheaton, Ill: Victor Bks, 1996), 159.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목사는 누구로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나 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쉽고 유혹을 받을 경우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IV. 왜곡된 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 탈선: “신뢰의 배신”

일반적으로 간음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이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뢰가 깨진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크기 때문이다.²³⁾ 목회자의 성적 탈선도 교회와 교인에게 이와 유사한 고통을 안겨다 준다. 그것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기대하고 부여했던 신뢰(Trust)를 목회자가 깨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헷지스구틀(Len Hedges-Goettl)은 목회를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에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맡은 목사를 신뢰하며 관계를 맺고, 목사는 그 신뢰의 터 위에서 교인들을 돌보며 사역한다는 것이다.²⁴⁾ 윤리학자 카렌 레박(Karen Legacqz) 교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²⁵⁾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이런 신뢰를 송두리째 저버리는 것이기에 그렌츠는 이를 “신뢰의 배신”(Betrayal of Trust)으로 칭한 바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신자가 목사에게 부여했고 기대했던 근본적인 것 즉 윤리적, 영적인

23)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Rev. and Exp., 『무례한 기독교』, 확대개정판, 홍병룡 옮김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4), 129.

24) Len Hedges-Goettl, *Sexual Abuse: Pastoral Responses* (Nashville, Tenn.: Abingdon Press, 2004), 13.

25)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Power and Paradox* (Nashville, Tenn.: Abingdon Press, 1985), 92.

신뢰를 깨는 행위이다. 적지 않은 목회자의 성범죄가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교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목사가 그 신뢰를 악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목사의 성적 탈선은 영적 윤리적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성격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것 일종의 권력 행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적 탈선의 근본적 성격은 권력의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⁶⁾

일반적으로 성추행 문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거의가 이것이 권력 남용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고 말한다. 그가 가진 권력을 성의 형태를 통해 악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이나 탈선의 성격도 예외가 아닌데, 호주의 가톨릭 사제로서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을 9년 동안 조사한 사제 로빈슨(Geoffrey Robinson)은 동일하게 이것을 권력적 범죄로 규정한다.²⁷⁾ 미국 베일러 대학의 가랜드 교수팀도 2009년 조사 분석을 마친 뒤 내린 결론은 목사의 성적 탈선은 정욕에 의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권력을 악용한 사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²⁸⁾

목회자들은 일종의 영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직업에 속하는 자들이다. 목사가 신자와의 관계에서 지니는 힘과 영향은 의사나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갖게 되는 그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들 전문인들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할 때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처방과 권고를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에게 힘과 권력을 자원하여 부여하고, 전문가들은 그것을 행사하는

26) Stanley Grenz and Roy Bell, *Betrayal of Trust: Confronting and Preventing Clergy Sexual Misconduct* (Downers Grove, Ill: IVP, 1995), 63.

27) Geoffrey Robinson, *Confronting Power and Sex in the Catholic Church*. 『성, 권력, 교회』, 최문희 옮김 (서울: 분도 출판사, 2011), 10.

28) Ken Camp, 「Study Finds Clergy Sexual Misconduct Widespread.」, 『*Christian Century*』 126.21 (Oct. 20, 2009): 14.

자리에 있다.²⁹⁾ 목사도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제공하는 전문가이기에 그 직분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갖는다.³⁰⁾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씀 대로 하면 해결되고 복 받을 것이라는 믿음 내지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인들이 힘들고 위기의 상황에 있으면 더욱 더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영생,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 직분에서 나오는 권위는 모든 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할 수 있다.³¹⁾ 이런 목회자와 신자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한다면 목사의 요구와 말을 신자는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목회자를 신뢰하기에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목사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목사의 이런 행동은 곧 그의 권력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이어진다. 이는 또한 권력에 의한 성적 폭력의 성격을 지닌다. 성경에도 이런 유형이 나온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 범한 것도 일종의 왕이 지닌 권력을 행사한 권력형 폭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적이며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 것이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도 이와 유사하다. 다말은 왕위를 곧 이어받을 서열에 있는 암논의 요구에 끝까지 거역할 수 없었으며, 결국 철저히 약자였던 다말은 암논의 권력에 성적으로 희생당한다.

오늘 목회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탈선 유형은 깊이 상처받은 교인을 돌보고 챙겨주는 과정에서 연민의 감정이 발전하여 생기는 탈선이다.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한 성적 탈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인 쿠퍼화이트(Pamela Cooper-White) 교

29) Karen Lebacqz, *Professional Ethics: Power and Paradox*, 121.

30) Stanley J. Grenz & Roy D. Bell, *Betrayal of Trust: Sexual Misconduct in the Pastorat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86.

31) Geoffrey Robinson, 『성, 권력, 교회』, 16.

수는 이것도 두 사람 사이의 밀애나 우발적 간통이 아니라, 목사가 교인에 대해 철저하게 권력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한다.³²⁾

예를 들어 상처가 많은 여 집사가 자신이 신뢰하는 목사에게 찾아와 상처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 목사님의 지도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교인은 존경하고 신뢰하는 목사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의지하는 가운데, 만약 목사가 자신을 연민하고 따뜻하게 안내하고 자신의 변화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여집사는 이것을 목사가 자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를 자신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가 좀 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까이에서 자신을 돌봐 주기를 원하는 의도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목사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동정하여 그것에 호응한다면 과연 이 경우도 목사가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목사가 신도에 대해 친밀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목사가 지켜야할 경계를 허문 잘못이지만 서로 감정이 공유하여 결국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정사나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지닌 힘을 통해 상대를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통제력을 행사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목사들은 이미 자신과 교인 사이에 놓여있는 권력의 격차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 교인이 자신에게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가올 때, 상대를 봉사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지닌 권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상대를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목사의 이와 같은 성적 탈선은 다분히 상대의 몸과 마음을 자기 뜻대로 만지고

32) Cooper-White, *The Cry Of Tamar*, 152.

통제하려는 힘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권력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권력 행사를 통해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³³⁾

어쨌든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분명히 성직에 주어진 권위와 권력에 대한 신뢰 즉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영적인 권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목회자 자신과 상대방, 더 나아가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악 영향을 미친다.

V.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낳는 결과

1. 목회자

목사가 성적으로 넘어졌을 때 어떤 유형의 탈선이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목사의 성직자로서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정 사고, 거짓 학위 등의 것은 덮어주거나 가벼운 경고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성적 탈선이 명백히 드러나면 목사는 성직자로서의 품격과 도덕성을 엄청나게 손상 받게 되고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때까지 설교하고 권고해 왔던 것을 부인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권위와 신뢰를 받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³⁴⁾ 그 이후의 목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험난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33)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자원」, 『복음과 상단』 제 19권 (2012), 279.

34) Joe E. Trull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Moral Formation for Church Leaders*, 2n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172.

난 뒤 적절한 치리와 해벌의 과정을 겪어 다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목회할 수 있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두 명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이다. 깨어진 신뢰는 재기할 수 있게 할 만큼의 동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상대자

상대가 받게 되는 상처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크게 된다. 먼저 목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여직원이나 교인에게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 성적인 폭력을 행사해온 경우라면, 피해자가 받는 상처는 의외로 깊다. 피해자는 수치심, 죄의식, 무력감, 분노 등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내상을 입게 된다. 외적으로는 어쨌든 자기 교회 목사와 성적으로 연루되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는 낙인과 이에 대한 교인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개 그 상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도 일어난다.

십계명과 모세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나, 불로 태어 죽임을 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렇게까지 극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끼리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간음을 이 책임을 유기하고 오히려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7계명은 바로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적 탈선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나 피해자의 가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3. 교회

해당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교인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동요하기 마련이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깨뜨려지면서, 실망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심한 배신감으로 신자들의 영혼은 크게 상처를 받는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특히 신앙이 약한 자들은 이런 일로 넘어지게 되면서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

4. 이웃과 사회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이미지와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된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사역은 생각보다 큰 스캔들 즉 걸림들에 걸려 막히게 되거나 실족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의 성적 비행과 탈선을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 성직자를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많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일삼는 이중인격자 내지 위선자로 보게 되고, 그들의 설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종교적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냉소하게 된다. 이들은 기독교와 교회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기독교에 약간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할 수 있는 큰 호재로 삼아 떠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목사의 추행은 기독교 복음 사역에 치명적인 스캔들로 작용한다.

VI. 성적 탈선의 예방책: 경고체계와 지원체계

목회자의 성적 탈선 문제는 이미 상당히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로 드러난 이상 자신도 이런 악을 범할 수 있음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교회 안 밖에서 상담과 중보기도,

영적 조언, 경조사 참여 등과 같은 친밀성의 구조 가운데서 사역하기 때문에 성적 유혹을 받을 구조적 요인들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기에 이런 요인들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각별히 애써야 한다.³⁵⁾ 트룰 교수는 이 문제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자 출발점은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실 인정에 기초해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다.³⁶⁾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정직한 자기 인식과 성직자로서의 자아 정체감 재확인

목사들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적인 유혹에 언제나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자만하지 않는 태도로 각성을 해야 한다. 목사들은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 성도들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더욱 자주 노출되며, 탈선하기 쉬운 구조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언하고, 사무실에서는 부드럽게 상담하는 목사의 모습은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온화하게 보인다. 이런 모습은 여 성도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만남의 빈도가 높아지다 보면 감정적 애착과 친밀함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이성 교인과 여러 차례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 관계해 나갈 때, 행여 성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움직임을 인지하면 즉시 정직히 이것을 직시하고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목회자는 상담이나 사역을 함께 하게 될 때, 교인이 목회자에게 보내는 친밀한 감정을 즉 감정적 전이(transference)를 감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게 될 때, 목회자는 근신하고 감정적으로 절제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교인이 느낄 수 있을

35) Linda K. Oxford, "What Healthy Churches Do To Protect Vulnerable Others And Prevent Clergy Sexual Misconduct," *Family and Community Ministries*, vol 25 (2012): 84-6.

36) Trull and Carter, *Ministerial Ethics*, 164.

정도로 반응하는 것 즉 감정적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³⁷⁾

목사는 신자와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영역 경계가 있음을 알고 그런 감정의 전이를 감지하면 특별히 경성해야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목사가 이에 대해 스스로를 방임함으로 감정의 역 전이를 일으켜 상대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여, 목사에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까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키우게 할 수 있다. 때로는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권력을 즐기기 위해 또는 성적으로도 어느 정도 즐기기 위해 신자의 감정적 전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목회자는 이 유혹을 경계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목회자는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직시하고 즉시 감정 전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감정의 변화를 감지할 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직분을 수종드는 자라는 정체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조용훈 교수는 이것을 가장 우선적인 예방책으로 강조한다.³⁸⁾ 목회자도 법조인이나 의료인처럼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오랜 연수를 거쳐 비로소 직분을 인허 받고 권위를 부여받는 자라는 점에서 전문 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는 그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을 다루는 성직자이다. 그러므로 다른 전문직보다도 더 독특한 자신의 신분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 사역은 일반 전문직보다는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과 영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성적 부정함에 자신을 방임하여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사역을

37)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자원」, 『복음과 상단』 제 19권 (2012), 282.

38) 조용훈, 「목회자의 성적탈선과 목회 윤리적 과제」, 『신학사상』 제 124집 (2004 봄), 205.

위해 목회자는 최소한 비난받지 않는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나아가 함을 가르친 바가 있기 때문이다(마5:20). 목회자들은 감정이 극단적으로 요동치고 역 전이되는 순간에 이르게 될 때, 만약 자신이 성적으로 탈선하면 성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³⁹⁾ 극단적으로 성적으로 부정한 짓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하지 못하고 성직자로서의 삶은 끝이라는 의식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2. 성적 탈선 위험 징후 측정 체계 마련하기

목회현장에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끌림이 종종 일어나고 그에 따라 친밀해지게 되면 목회에 활기가 생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 목사는 조심해야 한다. 윤리학자 레박은 친밀성이 자칫 성적 유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지하고 사인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마련되면 목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친밀성의 한계 안에서 교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역을 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⁴⁰⁾ 레박은 많은 목사들의 실제적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몇 가지 중요한 측정 기준과 경고의 사인(warning signs)을 제시한다.

첫째는 일반적 수용 여부(test of publicity)이다. 목사가 신자와 가벼운 등 두드림이나 악수나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교인이 보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 물론 목사의 아내가 보아

39) 팀 라헤이는 실제로 목사의 탈선한 후 치리를 받고 해벌이 되어 목회에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목회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됨을 역설한다. Tim Lahay,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목회자가 타락하면』, 황승균 옮김 (서울: 생명의 샘, 1992), 23-26.

40) Lebacqz, *Sex in the Parish*, 51.

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목사의 신체접촉을 약간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경고의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은 교인들의 “생각”보다도 자신이 적절하다는 “느낌”을 중시하고 그 느낌에 따라 신자에게 친밀감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⁴¹⁾

둘째는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인과 접촉하거나 대화하게 될 때 성적인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위험의 징후로 파악하고 경고의 신호로 파악해야 한다.⁴²⁾ 특별히 발기의 기운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의 신호로 생각하고 근신해야 한다.

셋째는 교인을 친구나 목양자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로 공상(fantasy)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한 경고의 사인임을 알아야 한다.⁴³⁾

넷째는 목회자가 그 교인과 대화할 때 교인의 관심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문제나 감정적인 것에 집중하거나 교인과 자기 사이의 문제에 관해 대화하면서 친밀함을 나누는데 집중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징후를 알리는 경고의 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다섯째는 목회자가 어떤 특정 이성 교인에게 시간과 관심을 많이 보이고 또 그 교인의 전화나 대화나 방문에 흔쾌히 반응하고 더 친밀감을 표시할 경우 그것은 위험스런 관계로 미끌어 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인일 수 있다.⁴⁵⁾ 그리고 비록 사람 앞에서 하는 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41) Ibid., 53-4.

42) Ibid., 55.

43) Ibid., 57-62.

44) Ibid., 63.

45) Ibid., 64.

다른 사람에 비해 약간 더 길거나 신체 접촉이 심할 경우도 위협의 징후일 수 있다.

여섯째는 이성 교인이 목사에게 성적인 뉘앙스가 실린 몸짓이나 눈짓을 보내거나 애정의 감정이 실린 표현을 목사에게 스스럼 없이 하게 되면, 또 성적인 주제에 대해 말을 나누게 되는 정도면 그것은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가 경계를 넘어서는 위협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⁴⁶⁾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언급하면 가볍게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잡고 손등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신체 접촉도 가능하면 삼가는 것이 좋다.⁴⁷⁾ 특히 독신자들 사별자들과의 피부 접촉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커피는 이○○ 집사가 타야 맛있다”는 것과 같은 성 차별적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발언이나, 외모를 언급하는 표현들인 “예쁜 김○○ 집사님이 깎으니 사과가 더 맛있네” 라는 식의 발언도 별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성적 뉘앙스를 전달받거나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목회자는 바울이 권고한 바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딤후전 3:2).

목사들은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성 신자들과 대할 때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근신하면서 일절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씨름해야 한다. 여자 성도와의 상담을 할 때에 횡수, 상담 장소 등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할 때, 특히 그것이 가정사와 배우자와의 문제일 경우 더욱 원칙을 갖고 대해야 한다. 상담하는 횡수에 상한치를 두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전문인에게 넘긴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만나도 뭔가 밀폐되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오픈된

46) Ibid., 65

47) 김승호, 「왜곡된 영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 탈선」, 『신학과 목회』, 제 33집 (2010), 48.

곳에서 다른 사역자와 대동하여 만난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정욕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3. 지원 체계 마련하기

목회자가 성적 단아함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자원들을 미리 잘 갖추는 것이 좋다.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자 무기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혼은 부부 간의 친밀감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로서 즐거움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을 고양하면 고양할수록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신실성을 유지하려는 책임감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성적 탈선을 방지해주는 훌륭한 자원인 셈이다.

둘째는 신실한 동료들로 구성된 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존경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도덕적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어려운 일을 나누고, 견제하고 굳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민들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더욱 좋은 지원 자원이 될 것이다.

셋째는 목사후보생을 받을 때부터 신학교에서는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성적인 문제점이 있는 자들을 발견하여 이런 학생들을 학생시절부터 상담과 다양한 방식의 치유와 교정을 통해 바른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하여 목회자의 성 윤리 의식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질을 갖추도록 격려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사람이 목사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여 적절하지 않은 신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목사 안수 이후에도 추가 교육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검증과 치료, 회복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교회가 목회자의 성적인 탈선을 예방하는데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II. 성적 탈선 사후 대응책: 정의와 회복

성적 탈선을 예방하면 좋겠지만 일단 탈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선 교회와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사회로 나가 사회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사건을 정의로써 처리하되, 무엇보다 관련 상처받은 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로빈슨 주교는 호주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일어난 사제와 수도사들의 성추행 사건을 9년 동안 조사하는 일에 관여했는데, 교회가 사건을 진실되게 조사하고 규명하기보다는 적당히 처리하여 넘어가려고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⁴⁸⁾ 이것은 개신교회도 거의 다르지 않는 현상이다. 목사가 성적인 문제에 연루된 일이 드러난 경우에, 당사자는 대개는 강하게 부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축소하거나 우발적 실수라고 몰아가기가 일쑤이다. 교회의 당회 내지 결정권이 있는 기구도 일반적으로 목사의 편을 드는 것이 다반사이다. 교회에 미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상을 드러내지 않고 대충 무마하거나 축소해서 처리하려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목회했던 어느 목사의 경우도 성추행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당사자들에게 사적으로 찾아가 달래며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결국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한

48) Robinson, 『성, 권력, 교회』, 10.

일이 있어” 스스로 교회를 사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사임했다. 교회도 정확한 진상은 밝히지도 않은 채 목사의 사임을 받아 처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처리는 성경이 특히 선지자들이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고 규범으로 제시한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다.

처리 기관은 목회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은 목사 개인이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간적인 죄책을 덮기 보다는 죄의 실상과 그것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인식하게 함을 통해 죄를 통렬히 회개하게 하고 치유 받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목사를 도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희생자인 피해자 교인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교회나 상회가 목회자의 목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하는 것은 목사의 성학대나 폭력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반드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마땅히 피해자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⁴⁹⁾ 그래서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것으로 보상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지원해야 한다.

49) Trull and Carter, *Ministerial Ethics*, 180.

VIII. 성적 탈선 관련 교회법 정립과 성윤리 강령

서구 교회는 지난 30여 년 간 이런 사례를 많이 겪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에 교단들과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대책과 관심은 거의 미미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성적 탈선에 연류된 목회자, 상대자나 피해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는 시급히 윤리강령과 교회법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한다.⁵⁰⁾ 대부분의 전문 집단들은 윤리 위원회와 징계 위원회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며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계는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교회 헌법에 목사들의 성 문제에 대한 규범이나 성적 탈선 처벌에 관련된 조항을 담은 교단 문제를 다룬 내용을 헌법이나 특수 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교단은 거의 없다. 한국의 가장 규모가 큰 예장(합동) 교단도 마찬가지이다.⁵¹⁾ 교회 헌법에 잘 갖춰져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해서 치리할 수 있어야 이를 통해 결국 재화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은 법은 강제력과 처벌조항을 통해 악한 자들의 악을 제어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이끄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자다운 삶으로 안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교회도 공동체의 거룩 유지와 당사자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50) 조용훈, 「목회자의 성적탈선과 목회 윤리적 과제」, 213.

51) 강호숙,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173.

시급히 목회자 윤리 강령을 만들고 아울러 목사들의 성적 탈선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은 치리 법규를 신설하거나, 이미 그와 유사한 법이 있으면 실효성이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하고 보완하는 일에 더 애쓸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교단이 아직도 이런 면에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임을 고려해보면 이 일은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대응책이자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IX. 나가면서

목회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한 창조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존재하듯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사는 존재이고 성은 전인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장치이다. 영혼과 육체, 그리고 영성과 성이 결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밀접히 관계되어 있고 성적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영혼의 강건함과 영성을 고양함에도 관계된다. 문제는 성을 왜곡하여 탈선하는 것인데, 목회자들에게 이런 유혹은 구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위에 늘 존재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늘 조심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바울이 권고한바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 자신도 성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면서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늘 근신해야만 한다. 성적 탈선은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미리 경고 장치를 마련하고 경고의 사인이 올 때마다 피하고 삼가려고 해야 한다.⁵²⁾ 교회나 교단도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되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에 더 힘을 써야

52) Lebacqz, *Sex in the Parish*, 242.

한다. 특히 교단은 윤리 현장을 마련하여 구조적으로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더 철저히 윤리 강령에 따라 사역하며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의식화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건강한 성적 관계를 해 나감과 동시에 성적 접촉의 위험이 교회 주변에 늘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적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 유혹에 대항하면서 맡겨진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호숙. 「개혁교회 성윤리에 대한 여성 신학적 고찰: 목회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 문제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제 26권, 2012, 172-197.
- 김승호. 「왜곡된 영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 탈선」, 『신학과 목회』, 제 33집 (2010), 35-51.
- 조용훈. 「목회자의 성적탈선과 목회 윤리적 과제」. 『신학사상』. 제 124집, (2004), 193-217.
- 차정식. 『성서의 에로티시즘』. 서울: 꽃자리, 2013.
- 하재성.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예방하기 위한 신학교육의 자원」. 『복음과 상단』. 제 19권, (2012), 271-295.
- Balswick, Jack O., and Judith K. Balswick. *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Approach*. 홍병룡 역. 『진정한 성』.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9.
- Barton, Ronald G., and Karen Lebacqz.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 1991.
- Bell, Roy D., and Stanley J Grenz. *Betrayal Of Trust: Sexual Misconduct In The Pastorat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 1995.
- Cahill, Lisa Sowle, *Sex Gender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Camp, Ken. "Study Finds Clergy Sexual Misconduct Widespread." *Christian Century* 126,21 (2009): 14.
- Cooper-White, Pamela.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s Response*. Minneapolis: Fortress Pr, 2012.
- Dawn, Marva J. *Sexual Character: Beyond Technique To Intimacy*. Grand Rapids: Eerdmans, 1993.
- Foster, Richard J. *Money, Sex, And Power: The Challenge Of The Disciplined Life*. 김영호 역. 『돈, 섹스, 권력』. 서울: 두란노, 1989.
- Grenz, Stanley, *Sexual Ethics: A Biblical Perspective*. Dallas, Tx.: Word Publishing, 1990,

- Grenz, Stanley and Bell, Roy. *Betrayal of Trust*. Downer Grove, Ill. : InterVarsity Press, 1995.
- Grenz, Stanley J. "When The Pastor Fails : Sexual Misconduct As A Betrayal Of Trust." *Crux* 31,2 (1995): 23-30.
- Gushee, David P. "Clergy Sexual Misconduct: A Crisis in Ministerial Ethics," in *Preparing For Christian Ministry: An Evangelical Approach*, eds. David P. Gushee, and Jackson C. Walter. Wheaton, Ill: Victor Books, 1996. 153-165.
- Hedges-Goettl, Len. *Sexual Abuse: Pastoral Respons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 LaHaye, Tim F. *If Ministers Fall Can They Be Restored*. 황승균 역. 『목회자가 타락하면』. 서울: 생명의 샘, 1992.
- Lebacqz, Karen. *Professional Ethics: Power And Paradox*. Nashville: Abingdon Pr, 1985.
- Lebacqz, Karen and Barton, Ronald G. *Sex in the Parish*. Louisville, Kent: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Mouw, Richard J.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 확대개정판.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4.
- Nelson, James. *Body The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 1992.
- Oxford, Linda K. "What Healthy Churches Do To Protect Vulnerable Others And Prevent Clergy Sexual Misconduct." *Family And Community Ministries* 25,1 (2012).
- Robinson, Geoffrey, Bp. *Confronting Power And Sex In The Catholic Church: Reclaiming The Spirit Of Jesus*. 최문희 역. 『성, 권력, 교회』. 서울: 분도출판사, 2011.
- Trull, Joe E. and James E. Carter. *Ministerial Ethics: Moral Formation For Church Lead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논문투고일: 2015. 02. 28.

심사개시일: 2015.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11.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목회자의 성적 탈선에 대해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어 예방책과 대응책을 제시한다. 목회자의 성과 영성에 대한 두 상반된 견해가 교회를 통해 흘러내러오고 있고 수도사적 성적 절제를 더 우월한 것으로 보는 사제 독신주의가 영적 엘리트즘과 합류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한 지류로 내려오고 있지만, 성경은 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 나뉘음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관계있음을 말한다. 논문은 이 입장을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해석을 통해 제시한다.

이어 이 논문은 목회자의 성적 에너지와 욕구가 억눌리고 결핍되면 성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회 사역에서 일어나는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목회자 성적 탈선의 다양한 유형과 탈선하는 목회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한다: 약탈자, 방랑자, 그리고 연인. 각각의 유형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예를 설명한다. 이어서 탈선을 낚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목회사역의 구조와 개인적 요인을 지적하고 살펴본다.

무엇보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분석 내용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인데, 논문은 목회자의 탈선의 성격은 성직에 내재된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고 교인과 목회자 간에 기대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신뢰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목사와 교인을 묶고 있는 위탁된 신뢰를 배신함으로써 결국 공동체의 신뢰구조를 급가게 해서 흔들고 와해시키는 중대한 악임을 분석한다. 이어 후반부에서 논문은 이 파괴적 악에서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성적 탈선의 경고하는 사인을 담은 '경고 체계'와 아울러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가동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그것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탈선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반드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이 사건을 공적으로 다루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공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의 정립과 성윤리 강령을 교단들이 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목회자의 성, 목회자 성적 탈선, 영적 권력, 신뢰의 배신, 경고체계, 정의